

#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 가치관 교육

## 제재 확장을 위한 시론

-〈숙영낭자전〉을 중심으로-

정선희\*

〈차례〉

1. 고전소설을 활용한 가치관 · 문화교육의 필요성과 〈숙영낭자전〉의 의의
2. 〈숙영낭자전〉을 통해 보는 전통적 가치관
  - 1) 애정관
  - 2) 부부관
  - 3) 세계관
  - 4) 처세관
3. 〈숙영낭자전〉을 통해 보는 전통적 생활문화
  - 1) 혼례(婚禮)
  - 2) 상례(喪禮) · 제례(祭禮)
4. 나오는 말

### 〈국문초록〉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 한국문화교육에 있어 고전문학을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은 제기되었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모색과 실질적인 연구가 이루어 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 고전문학 중에서 고전소설이 특히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교육 고급 단계의 제재’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 고전소설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풍속이나 생활 등의 일상과 가치관, 갈등 양상, 관계망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설’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흡입력이 크기에 우리의 역사서나 사상서를 읽기에 역부족인 외국인들이 좀 더 쉽고 실감나게 우리의 풍속과 법도, 예의와 도리 등 가치관과 생활문화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 목원대학교 국문과 교수

특히 현재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교육 받기 위해 와 있는 외국인 학생들은 대부분 20대의 청년들이기에 ‘애정’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이고, 자신의 애정 성취와 인생 행로, 부모님 의사와의 조율 등으로 고민과 갈등을 겪고 있을 것이기에 고전소설 중에서도 애정소설인 <숙영낭자전>을 교육의 제재로 선택하였다. 이 작품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애정관, 부부관, 세계관, 처세관 등의 가치관이 제시되어 있으며, 혼례와 상례, 제례 등 생활 문화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숙영낭자전>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 창작되었으리라 생각되는 애정소설로, 판소리로도 불린 작품이다. 애정, 본능 지향의 진취적인 면과 함께 훼손, 정절 화소의 보수적인 면을 함께 갖고 있으며 19세기의 전환하는 의식 세계를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적강(謫降)한 선녀와 신선이 주인공으로 설정되어 있고, 천상계와 지상계가 연결되어 있으며, 천상계의 힘의 현시(顯示)로 ‘꿈’이 자주 활용되는 등의 특징을 통해 ‘선한 사람은 하늘이 돕는다.’라는 관념과 초월주의적인 세계관을 투영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숙영과 백선군의 애정을 통해 소설 향유층의 애정관과 당대의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아울러, 과거(科擧)를 통한 출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버지와 출세보다는 아내와의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들의 처세관이 다름을 보면서 변화하던 인생관을 이야기할 수 있다.

한편, 『주자가례』식 혼례(婚禮) 절차와 상례(喪禮), 제문(祭文) 등에 관해 설명할 수도 있다. 의혼(議婚), 친영(親迎), 부현구고(婦見舅姑) 등의 혼례 절차가 변형된 모습으로 제시되며, 소렴(小殮) 등의 상례가 제시된다. 제문은 생전의 사적이나 삼화적 에피소드는 극히 소략하고 망자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극대화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가치관과 문화가 당대인들의 그것과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당시의 생활과 인식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담아냈고 당대인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상을 그려냈다고 하는 국문장편 고전소설에서는 <숙영낭자전>의 선군과는 정반대로 아내와의 애정보다는 효(孝)를 중시하는 남성의 모습이 더 보편적이다. 효를 넘어서는 가치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으로 그려지며, 자신의 감정보다는 가문의 위상을 중시한다.

따라서 이 작품을 교육의 제재로 하여 외국인들을 가르칠 때에는 이러한 제반 상황들을 함께 설명하여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드러

나는 부부관이나 세계관 등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부부는 하늘이 맺어준 것이라는 지 전생 인연으로 부부가 되었다든지 하는 말을 하며, 착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도 한다. 혼례나 상·제례도 간소화되기는 했지만 비교적 면면히 이어지고 있으므로 현재의 문화와 함께 흥미롭게 수업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작품의 굵직한 갈등이나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작중 인물들의 입장이 되어 이야기해보거나 찬반을 나누어 토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줄거리나 인물형이 자국의 문학 작품에도 있는지, 자국과 우리나라의 가치관과 문화의 차이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결말에서 숙영이 재생하는 대목에 공감할 수 있는지 아니라면 어떻게 바꾸어 보고 싶은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효과적인 외국인 교육을 위해서는 고전문학 전공자들이 조금은 유연한 자세로 고전문학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서도 우리 문화의 정수를 가르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외국인 교육, 한국문화교육, 가치관교육, 교육 제재, 애정관, 전통생활문화, <숙영낭자전>

## 1. 고전소설을 활용한 가치관·문화교육의 필요성과 <숙영낭자전>의 의의

최근 몇 년 사이에 각 대학마다 외국인 교환학생과 유학생이 부쩍 늘었다. 이들은 대체로 자국에서 한국과 관련된 학과의 학생으로 있다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더욱 심도 있게 배워보고자 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는 할 줄 알고 한국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기초적인 한국어 회화나 단순한 어휘 학습보다는 한국 문학을 통한 언어 교육, 문화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출되고 있다.

선편을 잡은 양민정은 고전소설을 활용하여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교육함으로써, 그동안 생활언어교육에 그치던 것에서 나아가 한국문화의 이해 수준을 고양시키는 문화교육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확장, 심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표명하였다. 그래서 고전소설 중 가장 많은 독자를 확보하였고 현대에까지도 다양하게 재생산되는 작품인 <춘향전>을 중심으로 하여 유사한 주제의 외국 작품인 <로미오와 줄리엣>과의 비교를 통한 교육 방법을 논의하였다.<sup>1)</sup> 두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을 제시한 의의는 있지만, 읽기와 말하기, 듣기, 쓰기 등에 활용하는 방법과 두 작품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고전문학 작품을 통하여 우리의 문화와 사고방식, 가치관 등을 추출해 내고 이를 교육에 활용하는 데에까지는 다소 미치지 못 하였다. 이후, <단군 신화>와 민담 <니뭇꾼과 선녀>, 속담 등을 활용하여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장자못전설>을 서양의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하면서 한국어와 문화를 교육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도 하였다.<sup>2)</sup>

한편, 임경순은 외국인에게 한국문화를 교육하기 위해 기초적인 한국 문화 지식을 정리하였다.<sup>3)</sup> 한국문화의 전반적인 특징, 역사적 전개 양상, 한국인의 정체성과 지리 문화, 의식주, 여가와 관광 문화, 세시풍속과 의례(儀禮) 문화, 공동체 문화, 성(性)과 결혼 문화, 정치와 교육 문화, 경제와 과학기술 문화, 종교와 사상, 대중문화와 예술, 언어와 문학, 문화유산 등 무려 13항목에 걸쳐 구체적으로 정리한 의의는 있지만, 대체로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해놓은 것이어서 문학 분야와는 거리가 있다.

- 
- 1) 양민정, 『고전소설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법』, 『국제지역연구』 7권 2호, 2003.
  - 2) 양민정,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교육 방안 연구-한국 고전문학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9권 4호, 2006. ; —, 『전설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연구-〈장자못전설〉을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27집, 2009.
  - 3) 임경순, 『한국어문화교육을 위한 한국문화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9.

국제한국어교육학회에서도 외국인인을 위한 한국어교육론에 대해 책을 편찬했다.<sup>4)</sup> 이 책도 총 11항목이나 되는 방대한 분야를 다룬 것인데, 언어와 문화 교육의 중요성과 한국문화교육의 내용을 설명한 뒤, 한국 사회와 문화 예술, 문학과 역사에 대해 정리해 놓았다. 아울러 한국문화를 교육할 때에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방법, 문화를 교육하는 방법과 수업 활동, 교육 자료들에 대한 안내를 하였고, 영화나 광고, 대중매체,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서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그러나 이 책도 문화를 활용한 문화 교육의 성격이 짙어서 ‘문학’을 활용하여 어떻게 한국문화를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도움을 얻기는 어렵다.

이 두 책들은 한국의 문화를 외국인에게 교육하되 문학을 통해 가르치지 않는 않으며, 생활방식, 풍속 등을 실제 그대로 가르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면에서 본고의 지향과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그 이전에 양민정이 필요성을 제기하고 우리의 신화나 전설, 민담을 통해 교육하는 방법을 모색한 바를 계승하여, 이현주가 설화를 통해 초급 과정의 문학 교육 방안을 논한다거나 신윤경이 설화를 통해 ‘효’라는 가치 문화를 교육하는 방안을 논한 연구들이 맥을 같이 한다.<sup>5)</sup> 더 나아가 김종철은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할 때에 한국의 문화를 잘 활용한다면 한국의 문화와 한국어가 국제화될 수 있을 것이며 국가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sup>6)</sup>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외국인인을 위한 한국어·한국문화교육에 있어 고전문학을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4) 국제한국어교육학회편, 『한국문화교육론』, 형설출판사, 2010.

5) 이현주,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연구-설화를 통한 초급 과정 문학 교육』, 『새국어교육』 82호, 2009. ; 신윤경, 『한국의 가치문화 교육과 문학 활용』, 『한국어문교육』 9호, 2011.

6) 김종철,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화교육의 쟁점과 전망』, 『국어교육』 133, 2010.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기에 다양한 모색과 실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전문학 전공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많지 않아 적절한 고전문학 작품 선택과 지식 공유가 어려워, 단군 신화나 설화 몇 편, 소설 중에서는 <춘향전> 정도가 교육 제재로 활용될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고전문학 중에서도 고전소설이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고급단계의 제재’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고전소설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풍속이나 생활과 같은 일상의 모습과 가치관, 갈등양상, 관계망 등이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드러나 있다. 특히 소설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흡입력이 가장 큰 ‘이야기’로 된 문학이며, 애정, 가족,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고민, 가난, 전쟁, 탐욕, 허세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따라서 고전소설을 통한다면, 우리의 역사서나 사상서를 읽기에는 역부족인 외국인들이 좀더 쉽고 실감나게 우리의 풍속과 법도, 예의와 도리 등 가치관과 생활문화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sup>7)</sup>

특히 현재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교육 받기 위해 와 있는 외국인 학생들은 대부분 20대의 청년들이기에 ‘애정’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이고, 자신의 애정 성취와 인생 행로, 부모님 의사와의 조율 등으로 고민과 갈등을 겪고 있을 것이기에 고전소설 중에서도 애정소설에 흥미를 느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필자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과 문화 교육의 제재로 애정소설인 <숙영낭자전>을 선택하였다. <숙영낭자전>은 외국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춘향전>과 남녀 결연, 극적 반전과 정절 포상 등의 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으면서도, 이 작품만의 애정관, 부부관, 세계관, 처세관 등의 가치관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다. 또한 혼례(婚

7) 정선희, 『고전서사문학 영역(英譯)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연구』, 『한국고전연구』 16, 2007.

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등 생활 문화도 추출할 수 있기에 한국인의 가치관과 문화를 이해하고 논하게 하는 교육의 제재로 적절하다.

<숙영낭자전>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 창작되었으리라 생각 되는 애정소설로, 판소리로도 불린 작품이다. 애정, 본능 지향의 진취적인 면과 함께 훼손, 정절 화소의 보수적인 면을 함께 갖고 있으며 19세기의 전환하는 의식 세계를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sup>8)</sup> 판소리는 골계미와 비장미, 서민의식과 양반의식이 조화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작품은 후자가 강하므로 판소리로 계속 불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판소리 12 마당에 선정되었던 것으로 보아 인기를 가늠할 수 있다. 인기가 있었다는 것은 당대인들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비추어 공감할 만하거나 그들의 꿈과 욕망을 만족시켜 주었거나 생활상을 짙게 그려내었음을 증명한다. 또 이 작품이 양반들의 삶을 보여주었다고는 하지만 주된 독자층은 서민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문본만 남아 있으며, 이본의 숫자도 필사본 66종, 판각본 4종 등 총 71종이나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작품을 통해 한국의 보편적인 문화와 가치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숙영낭자전>은 적강(謫降)한 선녀와 신선이 주인공으로 설정되어 있고, 천상계와 지상계가 연결되어 있으며, 천상계의 힘의 현시(顯示)로 ‘꿈’이 자주 활용되는 등의 특징을 통해 ‘선한 사람은 하늘이 돕는다.’라는 관념을 투영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시비(侍婢)의 질투와 모해, 죽은 여 주인공의 재생 모티브 등을 넣어 흥미롭게 구성한 작품이다. 따라서 이 작품을 통하여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한국인의 애정관, 부부관, 세계관, 처세관 등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주인공의 혼례, 숙영낭자의 죽음 장면과 관련한 상례와 제례 등과 관련한 생활 문화<sup>9)</sup>에 대해 교육 받을 수

8) 김일렬, 『숙영낭자전 연구』, 도서출판 역락, 1999.

9) 이 작품은 특히 경상도 안동을 공간적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어 조선의 구체적인 지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전소설 전공자가 아닌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자들이 교육 현장에서 <숙영낭자전>을 제재로 하여 한국의 가치관과 문화를 교육할 수 있도록, 작품의 내용을 각 항목에 맞게 재구성하고 해석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현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제재로 활용되는 고전소설은 <춘향전>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소설은 허구이고 재미를 위해 갈등 위주로 서사를 엮어 냈기에 당대 현실을 그대로 담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 작품이 고전소설의 대표성을 띠는 것도 아니다. 이 작품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생활문화에 대해 알려주는 예문들을 추출하고 이와 관련된 당대의 현실과 그 굴절 양상에 대해 함께 논함으로써, 외국인 학생들에게 우리 고전소설을 통한 문화 교육을 시도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수업 방식이나 교육 방향 등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제안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 2. <숙영낭자전>을 통해 보는 전통적 가치관

### 1) 애정관

<숙영낭자전>은 백선군과 숙영 낭자의 결연을 중심 서사로 하는 애정 소설이다. 따라서 주인공의 애정 양상을 통해 소설 향유층의 애정관과 당

---

명을 배경으로 하는 몇 안 되는 소설이기도 하기에 작가가 작품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꽤 신경을 썼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고전소설은 대체로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을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배경지로 설정한 작품은 스무 작품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 중에서도 남원, 평양, 한양 등 종종 배경화되는 곳들을 제외하면, <숙영낭자전>의 배경지인 경상북도 안동, <장화홍련전>의 평안도 철산, <양반전>의 강원도 정선, <심청전>의 황해도 해주, <배비장전>의 제주 등 몇 곳에 지나지 않는다.

대의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우리의 초기소설사를 장식한 애정 전기소설의 남주인공들은 마음이 맞는 여성이라면 귀신이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을 나눈다. 한 번 마음을 빼앗긴 후에는 그녀를 잊지 못해 병이 든다든지 세상을 등지는 등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되므로 그들에게 사랑은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음을 알 수 있다. 17세기의 작품 <구운몽>에서는 남녀 간의 자유로운 성적 교류, 남성의 성적 환상 등이 표출되기도 하지만, 이같이 능동적, 적극적인 사랑과 혼인의 양상은 그리 많은 작품에 나타나지는 않는다. 같은 17세기의 작품인 <소현성록>의 소운성처럼 몇몇 국문장편소설의 남성 인물이 사랑에 연연해하고 사랑에 올기는 하지만, 한두 명의 주인공만을 내세우는 단편소설들에서는 그렇게 일반적인 남성상은 아니다.

<숙영낭자전>의 남주인공 선군은 꿈에 본 낭자를 잊지 못해 상사병(相思病)에 걸린다. 온갖 약을 먹어도 효험이 없고 더욱 깊어만 가는데, 이 같은 상황을 안 숙영이 선군의 꿈에 나타나 타이르면서 불로초(不老草), 불사초(不死草), 만병초(萬病草)까지 주지만 이것들을 먹어도 낫지 않는 심각한 상사병이다. 계속해서 병이 낫지 않자 숙영은 하녀 매월에게 그를 시중들게 하여 울적함을 달래라고 하지만 매월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되지는 못 한다.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는 남성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선군이 갈수록 숙영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깊어 가고 매일 우울하게 지내니 숙영은 그가 죽을까 두려워하면서 꿈에 나타나 옥연동 가문 정이라는 곳으로 오라고 한다. 그러자 선군은 그 말을 듣고 ‘너무 기쁘고 황홀하여’ 즉시 부모님께 말하고, 이에 반대하는 부모님께 “비록 부모님의 뜻을 어길지라도 어쩔 수 없나이다. 제 병이 이렇듯 심각하니 옥연동으로 낭자를 찾아가겠나이다.”<sup>10)</sup>라고 하면서 떠난다. 그는 옥연동에 가서도, 아

직 기다려야 하는 기한 3년이 안 되었으므로 선군의 목숨이 위태로울까 염려하는 숙영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낭자를 보고는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이때를 놓치면 다시는 낭자를 만날 수 없을까 두려워하면서 가까이 다가간다. 그는 ‘정신이 황홀해져 당장 달려가서 낭자를 껴안고 싶어’ 하며, “꽃을 본 나비가 불이 무서운 줄 어찌 알며, 물을 본 기러기가 어부를 어찌 겁네리오? 오늘 이렇게 낭자를 만났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나이다.”<sup>11)</sup>라고 말할 정도로 기뻐한다. 3년 뒤에 육례(六禮)를 갖추어 혼인하지는 말에는 다음과 같이 답하면서 사생(死生)을 결단하려 한다.

“내 지금 심정은 일일여삼추(一日如三秋)인데, 3년이면 몇 삼추(三秋)나 되겠습니까? 낭자가 만약 그냥 돌아가라고 한다면 내 목숨은 오늘로 끝날 겁니다. 내가 저승에서 외로운 혼백이 되면 낭자의 목숨인들 온전하겠습니까? 잃드려 바라건대 낭자는 송백(松柏) 같은 정절을 잠깐 굽히시어 불 속에 든 나비와 그물에 걸린 고기를 구해 주옵소서.”<sup>12)</sup>

이렇게 사랑에 목을 맨 끝에 드디어 숙영과 혼인하게 된 선군은 혼인한 지 8년이 되도록 매일 낭자와 함께 노닐면서 노래 부르고 거문고 타면서 즐기지만 한다. 낭자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 마음을 진정하지 못했다고 서술될 정도로 푹 빠져 지내는 것이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가라는 아버지의 말에도 수긍하지 못하고 왜 자신이 과거에 급제해야 하냐고 하면서 시험 볼 생각이 없다고 한다.<sup>13)</sup> 남자라면 당연히 과거 시

10) <숙영낭자전> 219쪽. (이상구 역주, 『숙향전·숙영낭자전』(문학동네, 2011.)에서 인용한다. 이하 동일하므로 쪽수만 밝히기로 한다.)

11) <숙영낭자전> 222쪽.

12) <숙영낭자전> 222쪽.

힘을 보아 입신양명(立身揚名)하겠다는 뜻을 품어야 하는데, 그는 그런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길을 떠나서도 낭자를 그리는 마음이 간절하여 하루 종일 겨우 30리를 가서 숙소를 정하고 음식에 손도 대지 않으면서 오로지 낭자만 생각한다. 그러다가 ‘낭자의 얼굴이 눈에 삼삼하고 말소리가 귀에 쟁쟁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인들 몰래 숙소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와 담장을 넘어 낭자의 방에 들어간다.’<sup>14)</sup> 다음날에도 또 서울을 향해 길을 떠나지만 낭자 생각에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겨우 오십 리를 가서 숙소를 정한다. 그런데 또 밤에 혼자 누워 있으니 낭자 생각이 더욱 간절해서 병이 날 지경이 되어 남몰래 집으로 돌아가 낭자를 찾는다.<sup>15)</sup> 이렇게 그는 온통 그녀 생각뿐인 것이다.

그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어머니 정씨는 숙영 낭자가 자결하려 하자 나중에 아들이 알면 자기도 반드시 죽으려 할 것이라고 예측 하면서 더욱 안타까워한다. 과연, 그는 과거 시험을 보고 돌아와서 낭자가 죽었음을 알고는 ‘눈물을 샘솟듯이 흘리며’ 대성통곡을 하고 허둥지둥 별당으로 들어간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안고 ‘통곡하다가’ 나중에 낭자의 시신을 안고 ‘기절하기까지’ 한다. 한참 후에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는 또 통곡한다.<sup>16)</sup> 낭자의 가슴에 꽂힌 칼을 빼자 청조(靑鳥) 세 마리가 나오고 그제야 겨우 낭자의 시신이 점차 상하기 시작하는데, 이 때 선군이 숙영의 시신을 안고 오열하는 장면을 보자.

13) <숙영낭자전> 225쪽.

14) <숙영낭자전> 227~228쪽.

15) <숙영낭자전> 229쪽.

16) <숙영낭자전> 254쪽.

“슬프다, 남자여! 어미를 찾으며 우는 춘향과 동춘의 거동도 보기 싫다. 불쌍하다, 남자여! 어린 동춘에게 젖을 먹이소. 어여쁜 우리 남자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는고? 절통하다, 남자여! 나도 데려가소. 원수로다, 원수로다. 과거 길이 원수로다! 과거에 급제한들 무엇하며, 한림학사가 된들 무엇하리? 옥 같은 남자의 얼굴 보고지고! 한순간을 못 보아도 삼 년을 못 본 듯한데, 이제 우리 남자가 죽었으니 어느 천 년에 다시 볼꼬? 어린 자식들은 어찌하며, 남자 없는 나는 잠시라도 어찌 살꼬? 더 이상 살 뜻이 없으니, 나도 죽어 저승에서 남자와 상봉하사이다. 처량하다, 춘향아! 너는 어찌 살리오? 애달프다, 동춘아! 너를 어찌할꼬?”<sup>17)</sup>

그는 이렇게 애통해 하고, 과거 보러 간 일을 원망하면서 대성통곡하다가 또 기절하고 만다. 그만 한탄하시라는 딸의 말을 듣고 그제야 겨우 정신을 차리지만, 딸이 주는 백화주(百花酒)를 받아들고 또다시 흐느낀다. 술을 마시려 하니 눈물이 술잔에 떨어져 술이 넘쳐흐르며, 딸이 꺼내 보여주는, 숙영이 만들어 놓은 도포와 관대를 보고는 ‘한 번 보니 억장이 무너지고, 두 번 보니 가슴이 막히고, 세 번 보니 어안이 병병하고, 네 번 보니 눈이 희미해지며 일천 간장이 굵이굵이 썩어 문드러지는 듯했다’라고 서술되고 있다. 아내의 죽음에 정신을 놓고 통곡하는 남성의 모습이 매우 실감나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 작품에서 애정 중심적이고 감성적인 남주인공을 형상화한 것은 당대 여성 독자들의 욕망과 환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욕망을 낭만적으로 재현하였기에 독자들은 소설을 읽으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자신을 사랑해주고 인정해 주며 자기만을 생각해주는 남편을 꿈꾸는 여성 독자들의 염원인 것이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남녀유별의 규범이 엄격했고 자유연애도 엄하게 규제되었기에, 소설

17) <숙영낭자전> 257쪽.

속 인물인 숙영과 선군의 애정도 옥황상제의 도움을 받아 숙영이 되살아 나서야 완성되고 지속될 수 있었다. 조선후기 가 유교적 지배 체제가 공고하고 애정을 과잉 억압하는 사회였기에 그에 대한 반동으로 애정소설이 확산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적 가치인 애정을 지배적 가치로 제약하며 예(禮)로 순치시키려는 공식 문화를 비판하려 했다<sup>18)</sup>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자는 이 작품의 애정관을 교육하면서 이러한 현실적 정황과 소설 문학적 굴절을 함께 설명하여, 실제 상황의 반대급부로서의 여성들의 바람이 담겨 있음도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 2) 부부관

한편, 우리 고전소설 중에는 ‘적강(謫降)소설’이라는 하위유형을 들 수 있을 정도로 적강한 주인공들이 많이 등장한다. 하늘에서 살던 신선이나 선녀가 죄를 지어 인간 세상으로 귀양 왔다는 설정이다. 이 작품에서도 남주인공 선군이 원래는 천상의 선관(仙官)이었고 그곳에서 숙영 낭자와 희롱하다가 벌을 받아 지상으로 귀양 온 것이라고 되어 있다.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이때 하늘에서 한 선녀가 내려와 향수로 아이를 씻겨 부인 곁에 누이며 말하기를,

“이 아기는 본래 천상의 선관으로 요지연에서 수경낭자와 함께 희롱했는데, 옥황상제께서 그것을 아시고 인간 세상에 귀양 보내어 그대의 집에 태어나게 했나이다. 이 아기는 수경낭자와 삼생연분이 있으니, 부디 귀하게 길러 하늘의 뜻을 어기지 마옵소서.”<sup>19)</sup>

18) 황혜진, 『애정소설과 가치교육』, 지식과 교양, 2012, 50~51쪽. 이 책에서는 애정이 다른 가치관과 갈등하는 양상을 고찰하였는데, <이생규장전>을 통해 애정과 효(孝)의 갈등을, <운영전>을 통해 애정과 충(忠)의 갈등을, <춘향전>을 통해 애정과 신분간의 갈등을, <주생전>을 통해 애정과 열(烈)의 갈등을 다루었다.

<구운몽>의 성진과 팔선녀를 연상하게 하는 대목이다. 곧이어 여주인공 숙영낭자도 인세(人世)에 태어나게 되는데, 선군이 천상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숙영은 전생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운명이나 두 사람의 인연, 숙명 등에 대해서도 예견한다. 그녀가 선군의 꿈에 나타나 알려 주는 경우가 많다. 선군이 다른 가문에 구혼하기 전에, 둘이 천정 인연이 있음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이때 수경낭자도 천상에서 선군과 희롱한 죄로 옥연동에 귀양 와 있었는데, 선군이 인간 세상에 태어난 까닭에 자기와 천생연분인 줄 모르고 다른 가문에 구혼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낭자가 생각하기를, ‘우리 두 사람은 인간 세상에 귀양 와서 백년가약을 맺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낭군이 다른 가문에 구혼하면 우리의 천생연분은 속절없이 되리라’라고 하며 슬퍼했다.<sup>20)</sup>

이렇게 둘은 천정(天定) 인연(因緣)으로 부부가 될 운명이지만, 곧바로 혼인해서는 안 되고 3년을 기다려야만 하는 운명이었다. 이것도 낭자가 선군의 꿈에 나타나 알려주지만, 선군은 계속하여 그녀를 잊지 못해 병에 들고 만다. 이 상사병은 그 무엇으로도 낫지 않아, 3년을 유예해야 한다는 운명을 어기고 사랑을 나누게 된다. 둘은 집안끼리 미리 정혼한 뒤 육례(六禮)를 갖추어 혼인해야 하는 당시의 법도를 어기고 둘이 먼저 만난 것이기에 숙영이 나중에 시아버지 백상공으로부터 예우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둘이 천정 인연을 지니고 있기에 부부가 된 것은 둘의 사랑의 필연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역경을 이겨내는 힘

19) <숙영낭자전> 214쪽.

20) <숙영낭자전> 216쪽.

을 주는 역할을 한다.

숙영은 죽을 때 남긴 혈서에 ‘이내 몸이 천상에서 죄를 짓고 인간 세상에 내려왔으나...’<sup>21)</sup>라고 쓰는데, 이렇게 자신이 전생에 선녀였고 지금은 적강(謫降)해서 내려온 것임을 분명히 인지하여 천상계의 남녀가 적강하여 내려온 것이라고 한다거나 주인공이 두 사람의 인연이 미리 예정된 것이라고 하는 등의 설정은 <숙향전>과 비슷한 면이기도 하다. <숙향전>에서도 전생 인연을 설정하고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을 통해 환상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현실에서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희망을 주는 효과를 낸다. 거개의 영웅소설들에서도 천상계에서 적강해온 인물들이 주인공이며, 그들이 곤경에 처하면 꿈을 통해 계시가 내려오거나 심지어 천상계와 지상계를 매개하는 도인이나 노승이 직접 돕기도 한다.

### 3) 세계관

천정(天定) 인연으로 부부가 된다는 인식은 하늘의 뜻과, 하늘에서의 전세(前世)가 현세(現世) 즉 인세(人世)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에 근거한 것이다. 이 작품에서 하늘은 항상 선한 인물에 조응하는데, 꿈에서 현시되거나 자연물을 통해 그 힘이 발휘되기도 한다. 현실의 문제를 하늘에 의지하여 해결하거나 합리화하는 ‘초월주의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한 예로, 숙영 남자의 시신을 옮기는 장면을 보자. 옥연동 연못이 큰물이 넘쳐흐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지가 어두워지고 산천이 빛을 잃으면서 연못의 물이 빠져 육지같이 된다. 그 연못 가운데에는 석관(石棺)이 하나 있어 거기에 남자의 시신을 넣어 안장하는데 그 관을 꺼내니 또 갑

21) <숙영남자전> 243쪽.

자기 뇌성벽력이 일어나고 오색구름이 둘러싸더니 순식간에 연못에 물이 가득 넘친다. 수장(水葬)이 된 셈이다. 선군이 더욱 슬퍼하면서 엎드려 통곡하고 제문(祭文)을 지어 읽자, 이번에는 더욱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남자가 녹의홍상(綠衣紅裳)에 칠보(七寶)로 단장하고 푸른 사자 한 쌍을 몰고 물에서 나오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늘의 힘을 빌려 일어나는 것이다.

한림의 땅에 엎어져 무수히 통곡하니, 온갖 초목과 짐승들이 우는 듯하고 산천이 무너지는 듯하더라.

그런데 제를 마치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남자가 녹의홍상에 칠보 단장을 한 채 푸른 사자 한 쌍을 몰고 물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이것을 본 조문객들이 모두 놀라며 말했다.

“남자님이 죽은 지 열흘 남짓이요, 또한 이미 수중 혼백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살아나온단 말인가?”

선군 역시 너무 놀라고 기뻐서 남자를 붙들고 대성통곡하니, 남자가 붉은 입술에 흰 이를 반만 열고 이르기를,

“남군은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마소서. 저와 함께 부모님을 찾아뵙고 천궁(天宮)으로 가사이다.”하고 함께 푸른 사자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sup>22)</sup>

이렇게 백선군의 기도와 하늘의 응답으로 되살아난 남자는 선군에게 천궁(天宮)으로 함께 가자고 한다. 자신이 누명을 쓰고 죽게 된 것은 모두 천상에서 지었던 죄 때문이었다며 이 모든 것이 천명(天命)이 아닌 것이 없다고 설명한다. 이제 옥황상제께서 천상으로 올라오라고 하시니 천명을 거스르지 말고 올라가자고 권하기도 하고, 시부모님께 백학선(白鶴扇)과 약주 한 병을 드리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불국(佛國)의 연화궁으로

22) <숙영남자전> 263쪽.

모셔갈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하기도 한다.<sup>23)</sup> 이렇게 숙영은 하늘 즉 천명을 알아차리는 인물이며 천명에 응하는 인물이기에 그런 그녀를 통해 천상과 지상은 연결되며, 이런 인물과 서사에 공감하던 독자들은 초월주의적 세계관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후, 숙영 부부와 그 자녀들은 푸른 사자를 타고 무지개를 건너 하늘로 올라가고 백상공 부부도 별세하게 되는데, 이때에 소백산 주령봉에는 곡소리와 함께 안개가 자욱하더니 상공의 집을 덮은 채 사흘 동안 머문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백산 주령봉은 신선이 놀던 곳이다.”<sup>24)</sup>라고 했다고 한다. 즉 낭자 부부는 애초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었고, 그 가족들도 사후에는 산에서 노닐던 신선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작품에서 중요한 일들은 거의 꿈을 통해 예견되고 해결된다는 면에서, 꿈은 하늘의 뜻이 전달되고 선한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는 데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선군의 꿈에 숙영이 나타나 둘의 천생연분에 대해 알려주면서 3년을 기다리라고 하는 대목, 선군이 상사병이 나자 꿈에 금동자(金童子) 한 쌍과 그림 하나를 갖다 주면서 금동자로 인해 부귀하게 될 것이고 그림을 덮고 자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대목, 숙영이 죽고 나서 선군의 꿈에 나타나 자신을 모함해 죽게 한 사람이 매월이라고 알려주는 대목, 선군이 매월과 돌쇠를 죽이자 숙영이 꿈에 나타나 이제 누명이 벗겨졌으니 한이 없다고 하면서 옥연동 못에 물어달라고 한 대목 등에서 그러하다. 즉 이 작품에서 꿈은 하늘이 착한 이를 돕는다는 ‘인과응보’의 관점을 시현하는 도구 또는 징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꿈이라는 장치를 통해 부부의 천정 인연도 강조되며, 아울러 갖은 시련을 겪은 착한 여주인공에게 하늘의 보상이 주어지기도 한다는 면

23) <숙영낭자전> 264쪽.

24) <숙영낭자전> 265쪽.

에서 당시 사람들의 운명론과 천정론적 관념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부관 항목에서 논한 바와도 같으며, 이 보상은 그녀가 재생하는 것으로 단적으로 표현된다.<sup>25)</sup> 부부의 인연을 다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서는 안 되니 다시 살려주어 원한을 풀어주고 함께 하늘로 올라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선인들은 하늘의 일과 지상의 일이 연결되어 있다고 여겼으며, 특히 하늘의 뜻과 운명은 꿈을 통한 계시로 전달되고 선한 인물들에게 복을 주는 방향으로 실현된다고 믿었다.<sup>26)</sup>

#### 4) 처세관

애정소설인 이 작품에서는 선인들의 처세관(處世觀)도 알 수 있다. 아들의 애정관과 처세관이 아버지의 처세관과 대립되어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처세관’은 소위 유가(儒家)의 적극적인 현실 참여나 도가(道家)의 탈속적인 은일(隱逸) 중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등의 거창한 의미는 아니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중시하며 살 것인가? 정도의 의미이다. 애정관 항목에서 보았듯이 이 작품의 남주인공은 무엇보다 부부사이의 애정을 중시한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남성들이 부부 사이의 정서적인 친밀감보다는 공적인 성취를 중시하는 성향을 보인 것과는 다른 면모이기에 작품 속에서도 갈등 양상이 드러난다.

<숙영낭자전>의 두 남성 인물 즉, 백선군과 그의 아버지 백 상공은 다른 처세관을 가지고 있기에 갈등이 빚어지는 것이다. 선군은 가문의 위상

25) 이처럼 우리 소설사에서 여성 주인공이 억울함을 겪고 자결했다가 재생하는 경우는 <삼한습유>에도 등장한다. 천상계 인물들의 토의와 판결, 동의에 따라서 말이다.

26) 현대의 우리들은 운명론이나 천정론적 관념, 초월주의적 세계관 등이 많이 희미해지기는 했지만,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든지, 부부는 전생의 인연이 있다든지 하는 정도는 무의식적으로 믿는 듯도 하다.

이라든지 부모에 대한 효(孝)나 입신양명(立身揚名)보다는 자신의 애정 성취, 아내와 즐겁게 지내는 것 등을 중시한다. 하지만 백 상공은 아들이 과거(科擧)를 보아 출세하기를 바라며 며느리도 좋은 가문의 여식으로 정식 혼인절차를 밟아 맞이하기를 바란다. 당시의 보통 양반들이 거의 상공과 같은 생각을 지녔을 것이지만, 젊은이들은 점차 이런 생각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여성과 자유롭게 연애하고 혼인하여 마음껏 정을 나누며 살고 싶어 했던 듯하다. 선군은 혼인의 예(禮)도 갖추지 않은 채 사랑을 나누는 숙영을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비례(非禮)로 맞이한 며느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은 잠시도 며느리 곁을 떠나지 않고 매일 함께 희롱하며 지내면서 학업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니 아버지는 더욱 민망해 하고 걱정하기 시작한다. 결혼한 지 8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아내의 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자 급기야는 과거 시험을 보러가라고 재촉하여 억지로 떠나보낸다.

선군이 남자의 아름다운 태도를 보고 남자를 더욱 사랑하여 마음을 진정치 못했다. 부모님도 두 사람이 매일 노는 모습이 사랑스러워 희롱하여 말했다.  
“너희 두 사람은 분명 하늘에서 내려온 선관과 선녀인가보다.”

그러던 어느 날, 상공이 선군에게 이르기를,

“내가 들으니, 조만간 과거시험이 있다고 하더구나. 너도 서울에 올라가 입신양명하여 부모를 영화롭게 하고, 또 조상의 이름을 빛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즉시 과거 길에 나아갈 것을 재촉했다. 이에 선군이 대답하기를,  
“우리 집이 천하에 다시없을 만큼 부유하고, 노비 또한 천여 명이나 되며, 벼슬아치들이 즐기는 것은 물론이요, 귀와 눈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무엇이 부족하여 제가 과거에 급제하기를 바라시나이까?”

하니 이 말에는 잠시도 남자의 곁을 떠날 수 없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sup>27)</sup>

아내와 놀기만 하는 아들에게 과거시험을 보라고 하는 아버지와, 집도 부유하고 노비도 많아서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과거시험은 무엇하러 보냐는 아들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이는 현대에도 반복되는 모습이기도 하다. 공부나 출세보다는 편하게 노는 것을 좋아하는 철없는 아들과 이를 바로잡기 위해 훈계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다.

아내 숙영의 강한 권유로 선군은 과거시험을 보러 가게 되기는 하지만, 하루를 못 가서 마음이 울적해지고 음식이 써서 먹지도 못하다가 집으로 되돌아오고 만다. 이렇게 아들은 아버지 몰래 되돌아와 며느리의 방에서 자고 가곤 하지만, 이를 눈치 채지 못하던 아버지는 며느리가 외간 남자와 간통한다고 오해하게 된다. 숙영의 방에서 나는 남자의 소리를 외간 남자의 소리라고 오해하여 시녀 매월에게 감시하게 하였는데, 선군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던 매월이 숙영을 모해한 것이다. 매월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은 상공은 숙영이 외간남자와 함께 있는 것으로 믿고 칼을 빼들고 숙영의 방으로 달려간다. 이 소리를 들은 아들이 도망가 버리지만, 그가 아들인 줄 모르던 시아버지는 더욱 며느리를 의심하여 하인들을 문초하고 며느리를 잡아오라고 하기에 이른다.<sup>28)</sup>

물론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남자가 드나드는 것을 직접 보았기에 의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그 상황을 알아보지 않고 며느리를 몰아세운 것은 그녀를 존중하지 않았거나 믿지 않았기에 그랬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숙영이 시아버지의 꾸중을 들은 후에 “...아무리 육례(六禮)를 갖추지 않

27) <숙영낭자전> 225쪽.

28) <숙영낭자전> 233쪽.

은 며느리라 할지라도 어찌 세계 이처럼 흉한 말씀으로 꾸짖으십니까?<sup>29)</sup>”라고 한 대목에서 잘 드러난다. 그녀가 만약 번듯한 가문의 여식이었다면,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금세 오해하고 내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이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인품이나 행실로 그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가문이나 배경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같은 상황을 두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남편이 잘못 판단하는 것<sup>30)</sup>이라고 하는 데에서, 시아버지가 편견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sup>31)</sup> 나중에 남자가 결백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상공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남자에게 자신이 망령되어 저지른 일이었다고 사과하기는 하지만, 며느리가 억울해 하며 자결하자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기 보다는 아들이 돌아와 자신을 책망할 것을 더욱 두려워한다. 그래서 새 며느리를 서둘러 맞아들이는 데에 급급해 하는데,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존재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가문의 위신과 아들의 감정 위주로만 생각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혼인과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문제에 대한 생각도 차이가 난다.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오는 선군을 도중에 만나기 위해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혼처(婚處)로 정한 임진사의 집 앞에서 백상공이 한 말이다.

“…… 혼인은 인간의 대사(大事)이다. 부모가 구혼(求婚)하고 육례(六禮)를 갖추어 혼인하여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자식 된 도리어거늘, 너는 어찌 이토록 고집을 부리느냐? 또한 네가 이대로 가는 것은 임소저의 평생

29) <숙영낭자전> 237쪽.

30) <숙영낭자전> 238쪽.

31) 이렇게 대개의 애정소설에서는 남편이 없는 사이에 여주인공이 큰 시련을 당하는데, 시아버지가 개입하여 며느리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월영낭자전>, <괴산정진사전> 등에서, 시어머니가 시련을 주는 것은 <정을선전> 등에서 볼 수 있다.

대사를 그르치는 것이니, 이는 군자의 도리가 아니다.”<sup>32)</sup>

혼인은 애정이 우선이라기보다는 부모의 생각에 맞추어 하는 것이고 그 결과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와는 다르게, 선군은 오로지 아내의 안부만 걱정하면서 집으로 내닫고 중문 밖으로 들리는 곡소리를 듣고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내가 있던 처소로 가기에 바쁘다. 선군은 이렇게 아내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녀와의 시간을 가장 행복하다고 여겼기에, 아버지나 당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입신양명(立身揚名)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양반 댁 자체라면 누구나 도전해보려 하던 과거(科擧)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당시의 출세 길은 과거를 통해서만 가능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10년 가까이 과거 공부를 하였고, 어떤 사람은 여섯 번 개명(改名)을 하여 자신의 운(運)을 바꿔서라도 급제하려고 발버둥을 쳤다고 한다.<sup>33)</sup> 그렇기에 급제자를 위한 잔치를 성대하게 했으며 그를 구경하고 축하해 주려고 찾아오는 손님이 5,000여 명이 되었다는 기록도 있다.<sup>34)</sup>

또 과거를 통한 출세가 중요했기에 아버지 백상공은 아들에게 과거 보기를 강요했던 것이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출세가 아니라 아내와의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아들은 이를 거부했던 것이다. 그러나 끝내는 과거를 보게 되고 급제하여 한림학사(翰林學士)로 제수되고 축하 잔치<sup>35)</sup>도 받게 된다. 하지만 그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이미 죽었다는 아내의

32) <숙영낭자전> 253쪽.

33) 김학수, 『고시공부는 비교도 안 될 처절한 과거 공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편, 『조선 양반의 일생』, 글항아리, 2010, 70~96쪽.

34) 이순구, 『조선의 가족, 천 개의 표정』, 너머북스, 2011, 154~155쪽.

35) 과거 급제자의 귀가 행렬과 환영 잔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예문이 있다. “이때 선군은 푸른 적삼에 관대(冠帶)를 입고 손에는 백옥홀(白玉笏)을 든 채 백마를 타고 내려

시신을 보기 위해 황망할 뿐이다.

### 3. <숙영낭자전>을 통해 보는 전통적 생활문화

#### 1) 혼례(婚禮)

이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의 전통 문화로는 『주자가례(朱子家禮)』식 혼례(婚禮) 절차와, 혼인 당사자보다는 부모님 의사가 존중되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혼례는 『예기(禮記)』에 명시된 전통적인 절차 즉 육례(六禮)를 지켰는데 이는 납채(納采), 문명(問名), 납길(納吉), 납징(納徵), 청기(請期), 혼례(婚禮)의 과정이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오면 이를 약간 변형한, 『주자가례』의 육례 절차를 따르게 되는데, 이는 의혼(議婚),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親迎), 부현구고(婦見舅姑), 묘현(廟見)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당시의 혼례는 가문의 적자인 종자(宗子)가 주관했는데, 남자 집의 적자가 중매쟁이를 보내 혼인의 의사를 묻는 것을 ‘의혼’이라 한다. ‘납채’는 자제를 사자(使者)로 삼아 여자 집으로 가는 것을 말하며, ‘납폐’를 할 때에는 색 비단을 사용하고 빈부에 맞춰 적당하게 하게 되어 있다.<sup>36)</sup> <숙영낭자전>에서는 이 세 가지 절차, 즉 의혼, 납채, 납폐의 절

---

오는데, 푸른 양산은 하늘을 가리고 어린 기녀들이 쌍쌍이 따르는 등 행렬이 십 리까지 늘어 있었다. 젊은 소년이 백룡 같은 준마에 금안장을 엮어 타고 수많은 악기로 태평곡을 연주하며 내려오니, 각 도와 읍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투어 구경하며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선군이 감영(監營)에 이르자, 감사(監司)가 환림을 맞이하는 환영식을 거행했다. 선군이 머리에 어사화(御史花)를 꽂고 허리에 옥대(玉帶)를 차고 천천히 들어갔다.” <숙영낭자전> 251쪽.

36) 김경미, 『주자가례의 정착과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례의 양상』, 『한국고전연구』 13, 2006.

차를 거치지 않고 외지에서 두 남녀가 먼저 사랑을 나눈 뒤에 함께 시가(媿家)로 간다. 따라서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친히 맞아오는 예인 ‘친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않지만,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시댁으로 온다는 점에서 변형된 친영 절차로 볼 수도 있다.

“낭군과 함께 내려가겠어요.”라고 하고 신행(新行)을 꾸렸다. … (중략)  
 … 좋은 노새에 호피(虎皮) 안장을 맵시 있게 지어 얹어 선군이 올라타고, 백옥 가마에 금발 주렴을 화려하게 차려내어 낭자가 비껴 탄 후, 하녀를 앞세우고 수레와 말을 몰아 시가(媿家)로 내려갔다.<sup>37)</sup>

예문에 나오는 ‘신행(新行)’이라는 말은, 혼인할 때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거나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신랑이 신부의 처소에 가서 사랑을 나눈 뒤 함께 신랑 집으로 가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때의 신행은 변형된 ‘친영’, ‘부현구고’의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숙영은 정식 혼례를 치르지 않은 상태로 시댁으로 오기에, 이것이 나중에 그녀가 시아버지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빌미가 되기도 한다.

또한 혼례는 부모님의 의사가 중요하고 신랑이나 신부가 될 사람 중 한 쪽의 부모가 구혼(求婚)하여 허락을 받으면 진행되는 혼인이 주를 이루었다. 이를 ‘의혼(議婚)’이라고 하는데, 이 작품에서도 신랑 될 사람의 아버지인 백상공이 신부 될 사람의 아버지인 임진사에게 구혼하는 장면이 있다. 임진사가 허락하자 백선군의 재혼이 성사되는 것이다.

“… 진사 댁에 아름다운 처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염치불고하고 왔사오니, 진사의 뜻은 어떠합니까? 선군이 아직 나이 어린 까닭에 새로 좋은 짝을 만나면 옛정을 잊을 듯하오니, 진사께서 기꺼이 허락해주시길 바랍니다.”

37) <숙영낭자전> 223쪽.

니다. 덕분에 선군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된다면 우리 두 집안이 모두 영화를 누릴 것이니,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중략) 상공이 더욱 애절하게 부탁하니, 진사가 마지못해 허락하며 말했다. “저 또한 한림 같은 사위를 얻는 것이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이에 상공이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선군이 이달 보름에 진사 댁 문 앞을 지날 것이니, 그 날로 날짜를 잡아 혼례를 올립시다.”라고 하고는 집으로 돌아와 임 진사 댁에 납채(納采)를 보낸 후 선군이 오기를 기다렸다.<sup>38)</sup>

혼인 당사자의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양가의 아버지들이 결정하는 방식이 자연스러웠던 것이다. 오히려 당사자들이 부모의 의견을 듣기 전에 먼저 마음이 맞아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 비례(非禮)였다. 당시의 혼인은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집안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었던 것이다. 현대에는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연애가 대세이기는 하지만, 부모님의 의견이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하며, 혼인날을 길일로 잡는다든지 사주를 본다든지 폐백을 드리는 등의 풍속은 남아 있다.

## 2) 상례(喪禮) · 제례(祭禮)

며느리 숙영이 자결하고 나서 백상공 부부는 아들이 오기 전에 그녀의 시신을 처리하려 한다. 그래서 ‘소렴(小殮)’을 하려 했으나 시신이 방바닥에 붙어 움직이지 않아 놀라게 된다. 이때에 ‘소렴’이라는 것은 시신에 새로 지은 옷을 입히고 이불로 싸는 것을 뜻한다.

조선 건국 이전에는 불교적으로 행해지던 상·제례를 건국 이후에 유교적으로 바꾸기 위해 『주자가례』를 따르라고 하였고, 16세기 전반 중종 조부터는 그 예법이 실제 생활에서 구현되기 시작했으며 17세기에는 정

38) <숙영낭자전> 249~250쪽.

착되어갔다. 『주자가례』의 상례(喪禮)<sup>39)</sup>에 준하여 진행되던 절차 중 소설 작품에 종종 등장하는 중요한 몇 가지만 정리해 본다. ‘반함(飯含)’은 시신의 입 안에 음식을 물리는 것이고, 소렴(小殮)은 죽은 다음 날에 시신을 여러 겹의 옷과 이불로 싸 묶는 것이며, 대렴(大斂)은 소렴 다음 날 즉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여러 겹의 옷과 이불로 싸 묶고 얼굴을 덮으며 관 덮개를 덮고 못을 박는 것이다. 장사를 지내고 돌아와서는 그 날 안에 빈소(殯所)에서 우제(虞祭)를 지낸다. 사후(死後) 1년이 되면 소상(小祥)을, 2년이 되면 대상(大祥)을 치른다. 이후 2개월 뒤에 담(禫) 제사를 지내면 탈상(脫喪)하게 되는 것이다.

상(喪)을 치르고 나서 백선균이 집으로 돌아와, 죽은 남자의 시신에서 칼을 뽑아내고 옥연동 연못에 남자의 석관(石棺)을 안장하고 나서 제문(祭文)을 짓는 대목을 보자. 본격적인 제례(祭禮)는 나오지 않지만, 일반적인 제문의 모습을 알려 줄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에 한림 백선균은 옥남자의 신령께 감히 고하나이다. 우리가 삼생연분으로 만난 원앙새와 비취새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백년 해로를 바랐더니, 인간이 시기하고 귀신이 장난한 것인가? 서로 몇 개월 떨어져 있는 사이에 그대가 아무 잘못도 없이 구천(九泉)을 떠도는 외로운 혼백이 되었으니, 어찌 슬프지 않으리오? 애달프다! 그대가 세상만사를 버리고 구천으로 돌아갔으니, 나는 춘양과 동춘을 데리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꼬? 슬프다! 남자의 시신을 앞동산에 묻어주고 수시로 무덤이라도 보려 했는데, 깊은 물속에 넣었으니 훗날 황천(黃泉)에 가서 무슨 면목으로 남자를 만나리오? 비록 유명(幽明)은 서로 다르나 인정(人情)은 평소와 다를 것이 없으니, 다시 한 번 만나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맑은 술 한 잔을 올리니 흠향(歆饗)하옵소서.

39) 주희, 『주자가례』, 임민혁역, 예문서원, 2007, 197~426쪽.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에~’라는 서두와 ‘맑은 술 한 잔을 올리니 흠향 하옵소서’라는 종결은 우리나라 제문의 상투적인 문구들이다. 여기에 망자(亡者)의 삶, 망자와의 관계, 남겨진 이들의 슬픔 등을 서술하였다. 선군이 이렇게 제문을 짓고 계속 통곡하니 온갖 초목과 짐승들도 우는 듯하고 산천이 무너지는 듯하였다고 한다.

제문(祭文)은 일반적으로 생전의 사적을 기술하는 묘지명의 성격과 망자에 대한 감정을 토로하는 편지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sup>40)</sup> 조선 후기로 갈수록 비통한 감정의 서정적인 표현이 확대되며 18세기의 문인 이광사 같은 이의 제문은 아내의 비극적인 죽음에 비통해하는 남편의 슬픔이 곡진하게 표현되고 삽화적 에피소드를 나열하는 구성을 보였다<sup>41)</sup>는 면에서 국문장편소설에서의 제문의 양상과 비슷한 면이 있다. 하지만 문인들이 남겨 놓은 제문들은 대체로 4언의 운문으로 되어 있으며 한문으로 지어졌기에 국문장편소설에 삽입되어 있는 국문 제문과는 다른 특성들도 있다.<sup>42)</sup> <숙영낭자전>의 제문은 생전(生前)의 사적이나 삽화적 에피소드는 극히 소략하고, 망자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만 극대화되어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40) 이은영, 『제문, 양식적 슬픔의 미학』, 태학사, 2004, 36~38쪽.

41) 김홍백, 『이광사의 아내 애도문에 나타난 형식미와 그 의미-제망실문을 중심으로』, 『규장각』 35, 2009, 185~218쪽.

42) 정선희, 『국문장편 고전소설의 망자 추모에 담긴 역학과 의미-서모, 아내, 아우 제문 분석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35, 2010, 3.

#### 4. 나오는 말

이상에서 필자는 고전소설 <숙영낭자전>을 통하여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생활문화를 외국인 학생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전초 작업을 하였다.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학생들이기에 비교적 알기 쉽게 현대역 된 고전소설을 한 편 읽히고 나서, 작중 인물들의 행동이나 상황 등을 예문으로 제시하면서 여기에 담겨 있는 가치관과 생활문화를 이야기 하는 방식의 수업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나아가 작품 속의 내용이 당대의 현실 상황과는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비교하거나, 작품 속에서는 몇 줄의 적은 서술이었지만 이를 단초로 삼아 더 확장하여 살펴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가치관과 문화가 당대인들의 그것과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당시의 생활과 인식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담아냈고 당대인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상을 그려냈다고 하는 국문장편 고전소설에서는 <숙영낭자전>의 선군과는 정반대로 아내와의 애정보다는 효(孝)를 중시하는 남성의 모습이 더 보편적이다. 낮에는 아내의 방에 들어가지 않으며 남이 보는 앞에서는 웃으며 대화하지도 않는다. 한 달에 반 이상은 서당에서 아버지나 형제와 거처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부모에 대한 효를 넘어서는 가치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으로 그려지며, 자신의 감정보다는 가문의 위상을 중시한다.

따라서 이 작품을 교육의 제재로 하여 외국인들을 가르칠 때에는 이러한 제반 상황들을 함께 설명하여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부부관이나 세계관 등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부부는 하늘이 맺어준 것이라든지 전생 인연으로 부부가 되었다든지 하는 말을 하며, 착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도 한다. 혼례나 상·제례도

간소화되기는 했지만 비교적 면면히 이어지고 있으므로 현재의 문화와 함께 흥미롭게 수업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작품의 굵직한 갈등이나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작중 인물들의 입장이 되어 이야기해보거나 찬반을 나누어 토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줄거리나 인물형이 자국의 문학 작품에도 있는지, 자국과 우리나라의 가치관과 문화의 차이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결말에서 숙영이 재생하는 대목에 공감할 수 있는지 아니라면 어떻게 바꾸어 보고 싶은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연구자는 “외국인에게 한국문학을 교육할 때에는 한국문학의 진수(眞髓)를 가르치겠다는 사명감을 버려야 성공할 수 있다. 감자는 뜨거울 때 먹어야 제 맛이라면서 곧바로 뜨거운 감자를 입에 넣어주는 것은 감자의 맛을 영원히 알지 못하게 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일 수 있다.”<sup>43)</sup>라고 하였다. 우리의 과대한 욕심이 앞설 경우 너무 뜨거운 감자를 그 상태대로 먹이려고 할 것이기에 외국인들은 먹어보지도 못하고 떨어뜨리고 말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외국인 교육을 위해서는 고전문학 전공자들이 조금은 유연한 자세로 고전문학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우리 문화의 정수를 가르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43) 정병현, 『입문기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교육의 과제와 전망』, 『한국어교육학회 발표논문집』, 2002.

참고문헌

- 국제한국어교육학회편, 『한국문화교육론』, 형설출판사, 2010, 1~411쪽.
- 김경미, 「주자가례의 정착과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례의 양상」, 『한국고전연구』 13, 2006, 5~28쪽.
- 김일렬, 『숙영낭자전 연구』, 도서출판 역락, 1999, 1~346쪽.
- 김종철,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화교육의 쟁점과 전망」, 『국어교육』 133, 2010, 339~367쪽.
- 김학수, 「고시공부는 비교도 안 될 치절한 과거 공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편, 『조선 양반의 일생』, 글항아리, 2010, 70~96쪽.
- 신윤경, 「한국의 가치문화 교육과 문학 활용」, 『한국어문교육』 9,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11, 77~98쪽.
- 양민정, 「고전소설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법」, 『국제지역연구』 7권 2호, 2003, 279~301쪽.
- \_\_\_\_\_, 「디지털콘텐츠 개발을 위한 고전소설의 활용방안 시론 - <숙영낭자전>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19, 2005, 231~264쪽.
- \_\_\_\_\_,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육방안 연구 - 한국고전문학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9권 4호, 2006, 101~125쪽.
- \_\_\_\_\_, 「전설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방안 연구 - <장자못전설>을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27, 2009, 23~42쪽.
- 이가원,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교육방안 연구-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패러디 활동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38, 2012, 329~359쪽.
- 이기대, 「시아버지에 의한 며느리 박해의 소설화 양상」, 『우리어문연구』 30, 2008, 436~460쪽.
- 이상구, 『숙향전·숙영낭자전』, 문학동네, 2011, 213~265쪽.
- 이순규, 『조선의 가족, 천 개의 표정』, 너머박스, 2011, 154~163쪽.
- 이연숙, 「절리와 통합으로 본 통과의례의 공통성과 그 의미-혼례와 장례를 중심으로」, 『새얼어문논집』 16, 2004, 133~158쪽.
- 이현주,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교육 연구-설화를 통한 초급과정 문학 교육」, 『새국어교육』 82, 한국국어교육학회, 2009, 391~412쪽.
- 임경순, 『한국어문화교육을 위한 한국문화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9, 1~419쪽.

정병헌, 「입문기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교육의 과제와 전망」, 『한국어교육학회 발표논문집』, 2002, 1~9쪽.

정선희, 「고전서사문학 영역(英譯)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연구」, 『한국고전연구』 16, 2007, 39~65쪽.

\_\_\_\_\_,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상례(喪禮) 서술의 변모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28, 2009, 147~178쪽.

\_\_\_\_\_, 「국문장편 고전소설의 망자 추모에 담긴 역학과 의미-서모, 아내, 아우 제문 분석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35, 2010, 361~383쪽.

\_\_\_\_\_, 「고전소설 속 여성 생활문화의 교육적 활용방안 연구 - 국문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2, 2010, 83~121쪽.

한국고전연구학회편, 『한국어·한국문화교육을 위한 고전문학의 활용 방안』, 한국고전연구학회 81차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3. 2.

홍혜준, 「고전 작품을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21, 2004, 529~555쪽.

황혜진, 『애정소설과 가치교육』, 지식과 교양, 2012, 5~404쪽.

ABSTRACT

A study for expansion of material for education of Korean culture and values for foreigners

-In priority on <Maiden Suk Young>-

Jeung, Sun-hee

Many of the foreign students who wish to learn Korean culture and values in Korea would be interested in romance as they are mostly young people in their twenties and have concerns about their love affairs, future and reconciliation with their parents. Thus, I chose <Maiden Suk Young>, a Korean classical romance novel as material for education. Through this novel, we can educate students on Koreans' perspective of love, that of conjugal relationship, the world view, and a philosophy of living. Moreover, we can educate them on living culture related to funeral rites and ancestral ritual formalities with regard to the marriage of two main characters and the scene of Suk Young's death.

Thus, I focused on reconstituting and interpreting the novel so that educators can teach Korean values and culture through this novel. I examined culture education to foreign students using Korean classical novels by abstracting example sentences that tell about our traditional values and living culture and discussing about reality of the time and how it is reflected in those sentences.

**Key Words** foreigners, Korean culture, value education, culture education, material for education, a perspective of love, world view, <Maiden Suk Young>

논문투고일 : 2013. 03. 29  
심사완료일 : 2013. 05. 30  
게재확정일 : 2013. 06. 02